

신앙 성장 시리즈 50

여자다운 여자

What Does God Expect of a Woman?

여자다운 여자

What Does God Expect of a Man?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의 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

지난번 「남자다운 남자」를 출판했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다. 그 때 약속을 드린 대로 이번에는 「여자다운 여자」를 다시 출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항간에는 나름대로 여자에 대한 온갖 견해가 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세익스피어). “영원히 유행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여성다운 여성이 그 중에 하나이다”(랄스톤). “남자가 여자들의 노리개감이라면 여자는 악마의 노리개감이다”(빅토르 위고). “여자가 품위를 지키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여자의 영광은 남편의 존경이요 자기 가족의 행복이다”(루소). “많은 종자들 중 여자라는 종자는 남자라는 종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키플링). “여자여, 그대는 단지 하나님의 작품만이 아니요 남성들의 작품이로다. 하나님과

남자들은 가슴으로 그대를 영원히 아름답게 꾸며 주도다. 그대의 절반은 여자요 또 절반은 꿈이로다”(타골). “남자는 차이가 나 보았자 하늘과 땅 정도이지만 최악의 여자와 최선의 여자 사이는 천국과 지옥과 같다”(테니스). 견해가 많기도 하다. 누구나 할 말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여자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여자를 만드신 분의 견해일 것이다. 이번에는 그 분의 말씀을 들어 보자. 「여자다운 여자」는 인간의 견해가 아우성치는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을 요약한 것이다.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여자가 있다”는 말은 여자의 가능성을 널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다운 여자」가 많아지면 세계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이 작은 책자를 나누어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이요, 오늘과 내일을 위해 작은 공헌은 되리라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김상복 목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

하나님은 여성이 남성과 다르기를 바라실까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크리스천 여인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뜻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은 작은 것들은 개인들, 각 가정 및 교회 회중들의 양심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귀 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동안 나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소책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여성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틴 디 한 2세

1

여자의 위상

1964년에 제정한 미국의 민권법은 직장 여성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같은 교육이나 학력, 경력을 가졌으면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봉급을 주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단순히 같은 일에 대하여 동등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위상에 대하여 아직도 상반된 의견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복잡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골다 마이어 전 이스라엘 수상,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과 같은 여성을 존경해 온 이 세대는 또한 포르노그라피와 십대의 탈선 행위, 이혼, 경제적 불이익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여성은 만성피로, 환

멸, 분노, 좌절감 등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은 단순히 같은 일에 대하여 동등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30년 전 재즈 연주가였던 빌리 립튼은 재즈의 세계에서는 여성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리는 30년간 남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여 병원의 응급실에 옮겨진 그는 여성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세상이 정말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빌리의 생애는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때로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출 필요를 느낀다는 것도 상기시켜 줍니다. 여성은 때로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2

현재 우리의 모습은?

태초에 여성은 동반자로, 말벗으로, 그리고 지구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이와 같이 창조된 바 여성 본연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을 왜곡시킴으로 서로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사랑과 보살핌을 온전하게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그들의 영혼 속 깊이 뿌리내리고는 성에 대한 뒤뜰린 인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성과 여성 내면의 문제를 나타내는 풍자도입니다.

남성의 뒤틀림

우람한 육체미	마마보이	바람등이
운동에만 몰두	도박꾼	방랑인
만물박사	호주가	돈버는 기계
일만 이는 사람	열광적 팬	암전한 순둥이
동성연애자	돈키호테 형	허수룩한 노인
착하기만한 사람	홀로 애쓰는 남자	누워서 TV로 소일

여성의 뒤틀림

여장부형	파파걸	떠돌이 인생
파티형	복부인	공주병
심사를 굶는 성격	술꾼	쇼핑이 취미
슈퍼우먼	전화통에 매달림	식모
백치미	애 낳는 기계	페인트 칠한 부인
모양만 낚	식당아줌마	동네 북

불행하게도 이러한 뒤틀린 남성과 여성이 빠져나올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은 가난, 고독, 권태, 폭력, 좌절감 등으로 인한 증상을 아주 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받은 피해가 자식들에게 전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분노해서 집을 뛰쳐나가 방황하며 그들의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주신 생명이 참으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3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

오늘날의 여성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자신을 지으신 분의 계획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독특한 여성다움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조건과 능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아 충족과 안전을 확보하려면 먼저 여성은 소망의 소재에 관한 자신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 다음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보호 구역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91 : 1~6)

성경은 그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에는 여성이 품위를 지키며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 줍니다. 성경은 여성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또 성경은 여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

을 통해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 여성다운성품
- 선별적 순종
- 영적 평등
- 인격의 견고함

이 소책자에서 우리는 위의 네 가지 요소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유의 사항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나 악조건 속에서나 모든 조건 가운데에서 사는 여성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의 원칙들을 제시하여 다양한 환경에 골고루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많은 여성을 만납니다. 경건한 여성 사사와 선지자, 여왕, 독신녀, 아내, 어머니, 심지어 창녀 출신의 회개한 여성도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키운 여성들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독신의 삶이 더 낫다는 것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남자의 직분에 충실했던 삶의 본을 보여 줍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들과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들을 적절히 분간할 수 있게 되면 여성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삶에 있어서 관습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엉키어진 매듭을 푸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삶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성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수고와 책임을 누가 선뜻 나서서 맡겠습니까? 직장인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법률을 만드느라 애쓸 필요도 없겠지요. 아이를 낳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남자들 때문에 여성들이 싸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십대의 성문란으로 생기는 사회적 문제라든가 십대의 출산 문제도 없을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성의 문제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자손을 보존하는 다른 방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선포하신 후, 하나님은 아담의 손톱에서 유전자를 빼내어 땅에 심으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되면 땅에서 가지가 생겨나고 거기에 오이나 호박처럼 아담의 아기가 달릴테니까요.

“여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아담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복제 인간들을 만들기보다는 여성을 창조하였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신 후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세기 2 : 18)고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과 성의 기원을 말하는 창세기에는 하와를 여성으로 만든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누가 그를 여성으로 만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남성의 호르몬과 남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유전 인자 속에 넣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창조된 본래의 모형 위에 인간의 다양한 문화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세분화되었습니다. 모든 사회마다 제각기 여성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기본 구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여성으로 태어나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여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남성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전 인자와 호르몬의 성분이 다른 까닭에 남성은 근육질에다 공격적이며 목소리가 굵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성은 성장하면서 여성 특유의 친절함

과 돕는 마음과 예민함과 부드러움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자명하지만 적응 가능한 차이점의 결과,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의 핵심적인 성품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성은 호르몬에 의해서 특유의 공격성을 나타내며 이것이 남성을 주도형으로 만드는 반면에 여성은 수동형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아 때부터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볼 때 남성은 객관적 공간적 추론 등 분야에 강하며, 여성은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치를 밝히는 데 뛰어나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단편적 정의에 상관없이 성정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윌라드 하리는 자신의 저서 “남성의 욕구, 여성의 욕구(His Needs, Her Needs)”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

로 다른 우선 순위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남성의 욕구는 ①성적 만족 ②활동력이 되어 주는 동반자 ③매력적인 배우자 ④내조 ⑤존경받기 등의 순서입니다. 반면에 여성의 욕구는 ①애정 ②대화 ③정직과 포용 ④재정적 지원 ⑤가정에 충실함 등의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에 따른 차이가 확실하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절대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녀의 근원과 성품이 다르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성경은 또한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앞장서거나 강한 면을 보이거나 자기 주장을 결코 해서선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드보라와 아비기일, 훌다, 에스더, 슬로보핫의 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 어떻게 자기 주장을 펴야 하는지를 아는 전형적인 여성들입니다. 또 남성다운 남성은 예민

하거나, 감정을 보이거나, 동정심을 보이거나, 남이 필요할 때 돕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면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 바울 같은 분은 모두 남을 위한 연민의 정과 온유한 품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매우 비슷하면서도 멋지도록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문화적으로 정의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남녀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외모의 차이(신명기 22: 5)

모세는 남녀가 옷을 바꿔입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옷을, 남성은 여성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동양에서는 남녀가 모두 길게 드리우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식 기준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여성은 바지를 입지 말고 남자는 스코틀랜드식 치마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녀가 일부러 성을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여성의 옷을,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에 의하여 심지어 우리의 본성도 남성은 남성다운 외모를 지킬 것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고린도 전서 11 : 14,15)

성경은 여기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남성의 머리는 얼마큼 길어도 되고 여성의

머리는 어느 정도까지 짧아도 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높은 법을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본성을 지적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역할의 차이

여성은 집에서만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돌보아야 할 아이가 있는지, 남편이 혼자서 살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룻, 드보라, 안나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밖에 나가 일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반드시 집안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이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보금자리로 일구는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디모데전서 5:10,14). 자녀를 키우기 위해 가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어머니에게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이든 여성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저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디도서 2: 4, 5)

이 말씀은 모든 여성이 아니라 젊은 아내와 어머니에게만 해당됩니다. 특히 남편이 있는 젊은 아내와 어

머니로서 집안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보람을 찾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과연 여성은 남성보다 지능이나 능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남성을 집안의 머리로 모시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라는 말일까요? 여기에 그 사람의 지능이나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그러할 뿐입니다.

성관계에서의 차이

남성이 남성과 더불어, 여성이 여성과 더불어 애정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습니다.

저희 여성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

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로마서 1 : 26, 27)

이 말씀은 동성연애를 하는 여성들이 남성과의 성 관계를 증오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폭력을 쓰는 안하무인의 비정한 남자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남성과의 가까운 관계를 피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성애는 스스로를 과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결코 “문화인의 대안”이 아닙니다. 이 함정에 빠져있는 여성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호소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순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

위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①순종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며 ②여성은 순종의 기회뿐만 아니라 선별적으로 순종해야 할 책임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결혼한 여성들에게 말하는 선별적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시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순종보다 더 자세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관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에베소서 5: 22 24)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순종은 해도 되

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여성이 결혼식에서 어떤 서약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성의 규범입니다. (고린도전서 11: 1-3; 에베소서 5: 22- 24)

“여성은 남자의 요구를 수락하기에 앞서 두 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남편이 비록 건강하고, 사랑이 많으며,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베드로전서 3: 1,2)

여기까지가 순종의 한 쪽 측면이었습니다. 순종의 다른 측면은 생각없이 노예적이고 피동적으로 순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자발적이고 선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여성은 모든 남성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 다. 주님은 또 결혼한 여성이라도 남편이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언제나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정부의 지시에 언제나 순종해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5 : 29)

사도행전 5장 11 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아내가 남편이 지은 죄를 어리석게도 되 풀이함으로써 자기의 목숨마저 잃은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는 삽비라가 그의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삽비라는 이렇게 알면서도 남편의 계획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대신 그녀는 남편과 공모하여 그들의 현금 액수를 교회에 거짓말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둘을 모두 죽게 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삽비라는 남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아비가일은 삽비라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자기 자신과 집안 권속의 생명을 구했습니다(사무엘상 25 : 18- 44). 아비가일은 그의 아버지하고 심술궂은 남편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배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성인답고 경건한 여성으로서 아비가일은 일방적으로 남편의 어리석음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죽었으나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았지만 이것은 결혼생

활에서 일반적인 순종의 법칙에 비하면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 원칙이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거슬리는 때에만 아내는 다른 길을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사랑과 온유함과 바른 이성과 인내심과 바른 대접을 해주는 남편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있는 아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없이 나는 나의 역할은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순종을 하든 안하든 상관 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표시하든 안하든 상관 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형은 오늘날의 평등주의 문화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바른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여성에게만 주어진 도전은 아닙니다. 군인, 운동선수 및 직장인으로서의 남성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어린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시험으로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도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은 여성에게만 주어진 도전이 아닙니다.”

여성이 순종을 요구하는 일을 하다보면 언제나 좌절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갈 때에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운전 기사의 판단과 스텝에 모든 것을 의존한 채 자기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운전 기사가 한눈을 팔거나 조심하지 않거나 무책임하게 운전하면 뒤에 앉은 사람은 후회와 공포심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이런 좌절감을 여성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란 완전하기는 커녕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살핌과 그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과 생각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을 때 여성은 알면서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탈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잠시 접어두고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란 무엇인지 잠시 살펴봅시다.

남편이 주님을 따라야 함과 같이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에베소서 5 : 21~33)

아내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남

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남편에게 의존함으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회한과 분노 같은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말을 들으시고, 필요를 아시며, 필요할 때에는 아내와 남편사이에 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라가 남편에게 존경과 순종을 보여 준 본보기(베드로전서 3: 6)라고 하였는데, 창세기에서는 사라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두 인간이 어떻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을 저지른 후에라도 한 여성이 주 안에서 힘을 얻고서 자기의 심정을 모두 고백하고 남편의 양심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

리는 순종형 여인이란 반드시 피동적 여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종을 통하여 아이를 가지자고 한 것은 자기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악화된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라는 잘못하여 자기의 종을 통해 아이를 갖도록 한 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창세기 16: 5.6)

몇 가지 살펴 봅시다. 첫째, 사라는 아무 생각없이 피동적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라는 남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사라는 자기와 남편의 사이를 누군가 감찰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은 자기뿐 아니라 남편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한번 사라의 뜻을 따른 것을 보면 그도 아내의 항변에 큰 책임을 느낀 듯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영원히 안위하리로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아내의 책임과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아내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요구하거나 남

편이 탐닉하고 있는 포르노그래피나 아내를 바꾸는 놀이에 협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허위 소득세 신고서를 만들어 거기에 서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는 자신의 평정을 잃지 않고 예의를 갖추면서 이러한 제의에 강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베드로전서 3:1).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와의 신실한 관계를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해야합니다. 결국 주님이 아내의 안전을 그의 손 안에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남편은 죽을 수도, 반신불수로 누울 수도, 사고를 당할 수도, 바람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한 남성에게서 어떻게 안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남편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가능합니다.

여성은 결혼 전이나 후에나 교회에서 돕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1: 3-16; 디모데전서 2: 11- 15)

교회 안에서 여성은 선수겸 코치의 지도에 따라 시합을 하는 야구, 농구, 배구 팀 선수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한 사람의 선수로서 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팀 리더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에서 여성들은 교회 구성원으로 남성들과 함께 복음 전파의 통역자들로 묘사되어 있지만 장로나 목사나 사도들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여성은 교리적인 권위에 있어서 남성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로서 여성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에게 지원 역할을 맡겼습니다. 비록 여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언도 하였으며(고린도전서 11 : 5), 또한 교회 안에서 남자들과 더불어 일을 하고, 배우고, 예배를 드렸으나 남성과 함께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벌이거나, 교리의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디모데전서 2: 11-14)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존중했습니다. 여성을 진심으로 대하였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친구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대하였습니다. 여성을 보살피시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당치도 않았던 배려를 하였

습니다. 그러나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는 예수님도 여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특유의 논리적 전개를 다른 어떤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로마서 14: 1- 23). 바울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만 믿었다면 여성이 목사겸 선생님이나 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말을 임의로 해석해도 좋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문화와 시간을 뛰어넘어 창세와 인간의 타락 사건에까지 연결되는 본래의 모습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가 아니라 창조하실 때에 정하여졌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요 영적

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한 여성들에게 사랑과 이해를 표시했습니다(로마서 16: 1-3,6,13,15; 갈라디아서 3: 26-28 ; 빌립보서 4: 3). 그는 또 나이든 여성들은 주 안에서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디도서 2: 3-5). 그러나 여성이 남자보다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항상 여성은 교회 안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 다른 여성들을 돕는 전략적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일대일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특별 구제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성들은 서로의 필요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도우며, 손 대접을 하며, 찾아가 보살필 수 있는 한없이 많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우리는 장로의 일을 남성들에게만 제한한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남들을 돕는 일이 더욱 급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에덴의 동산에서의 사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선악과” 하나에만 정신이 팔려 동산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소홀하기 쉬운 사역은 여성이 여성을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돕는 일입니다.”

여성들이 자신과 하나님과 자기의 가정과 남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는 만큼 다른 여성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돕는 일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신 여성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결혼한 여성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노인이나 어린 소녀에게 친구가 되어 준다든가 전화와 편지와 그 밖에 친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의 여성들이 매우 낙담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엄청난 고독감과 위기감에 눌려서 모든 것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든 여성이나 젊은 여성이나 잘못된 성생활에 빠지거나, 약물이나 알콜에 탐닉하거나, 오늘날의 물질 만능의 분위기에 휩싸여 살게 됩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인생의 자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모든 남성들이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나 평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은 불평등과 싸우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창조된 것도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숨쉬는 호흡 한번과 심장의 박동 하나라도 모두 주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반 역할, 물질적 부,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교육 수준 등의 불평등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존귀함에서 평등

역할의 차이가 존엄성과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갈라디아서 4: 4)에서 사셨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셨고(누가복음 2 : 51),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셨으며(마태복음 22: 21),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을 머리로 삼고 사는 것과 같이(고린도전서 11 : 3)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았던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섭리는 삶 때문에 그의 존귀함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모습을 잠시 접어두시고 종의 모습을 보여 주셨을 때(빌립보서 2: 2-8) 그의 신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빌립보서 2 : 8)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였으나 이것이 자신을 비굴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역할을 통하여 자신의 존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원하여 순종적인 역할을 맡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인간보다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 9- 11)

“순종의 삶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것처럼 여성은 남자와 동등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성들의 보조 역할이 결코 한 인간으로서, 존귀함과 능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디자인과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만 외모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평등한 본성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개체이시지만 동등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도 가정과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실 때 이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 남성과 여성을 아주 다르게 창조하고 싶으셨다면 아마도 남성은 흙으로 빚어내고 여성은 구름 한 조각을 가지고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을 창조하시되 아담에게서 이런 탄성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창세기 2: 23)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느낌이란 산모가 자기 몸 안에서 자란 갓난아이를 기

적과 경탄의 눈으로 볼 때의 바로 그 느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함

이것은 모든 해방 선포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방의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님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6-28)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7)

이 말씀은 남성이 교만하거나 무례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에게는 오직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일만 하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땅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고르게 해 주는 불도저와 같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 서있다는 뜻입니다. 하는 일과 모습의 차이가 본질이나 평등성의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심사위원과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수영복과 연회복을 입고 걸어나오는 여성들이 아닙니다. 진실로 최종 심사에까지 오르고 영광의 관을 쓰는 여성은 내면으로부터 은혜와 따듯한 마음이 풍기는 여성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

체라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여성이 지닌 영적인 경건함이나 매력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성은 신뢰와 안위를 주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여성은 가치관과 중요함의 기준을 하나님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품위를 잃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비추어 보여 주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녀 자신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사람의 피부 두께만큼으로 그치지 않는 더욱 더 귀중한 것입니다.

한 여성의 견고한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잘못된 권위 아래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요, 주중의 주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임금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남용되는 권력의 지배 하에서도 어떻게 바르게 사셨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이 한 여성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베드로전서 3: 3- 5)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함에 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육신의 고초를 당하셨던 예수님(베드로전서 2:21-24)과 관련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혹 이 말을 가지고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의 폭력도 잘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힐 때까지 몸을 내어 주시고 도움도 청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내가 남편의 물리적 폭력을 참으라고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난폭해진 군중이나 관리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몸을 내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매맞는 것을 즐겨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을 그들에게 맡겼던 것은 단 한 번, 그가 받는 고통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할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 밖에는 예수님도 지혜롭게 위험한 곳을 피하여 다니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주님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아무 인간도 가져보지 못했던 견고한 인격을 보여 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권세의 그림자 아래에서 사는 동안에도 경건함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의 미래와, 그의 안위, 그의 소망과 그의 양식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상대방의 공격에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매우 밀접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아함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과 본을 찾으려는 여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여성을 알아보는 판단 기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은 없습니다. 이런 여성의 특징은 친절과 겸손, 인내, 용서, 사랑, 화평, 기쁨, 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 : 12~17) 옷 가게 어느 곳에서든 이런 것을 살 수 없으며 돈으로도 어떤 가격에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듯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가 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이 옷들은 모두 거저 주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베드로전서 3: 5) 라고 하였습니다. 견고하고 아름답기를 원하는 여성은 비싼 보석이나 고운 옷이나 화장품에 의지하지 않습니다(3 : 3). 그렇다고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모두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여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우아함과 내면의 힘과 신실함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할 때 아름다움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

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는 본보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여성은 또 옷을 가장 잘 입는 여성이란 품위와 내면의 힘과 존귀함과 하나님을 소리없이 믿는 믿음을 옷으로 입음으로써 변함없는 아름다움의 원천을 지니는 여성인 것을 드러냅니다. 베드로 사도는 결혼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의 견고한 인격은 약할 때에 강해집니다

이 점에서는 남성의 경우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힘으로 영적 능력이 강해지는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 7). 그는 또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

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2: 9)

연약한 그릇으로서 사는 것(베드로전서 3: 7)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대신에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성의 견고한 인격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성이 독신인 경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앞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깊고도 변함없는 소망을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린도전서 7: 34, 35)

바울 자신도 독신으로서 이 글을 쓰던 당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한 사람을 주님만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백성의 영원한 영적인 궁핍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더 푸른 초장에 관한 꿈을 꾸십시오. 아니면 심겨진 그 곳에서 활짝 피십시오.”

바울은 한결같이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고린도전서 7: 17-40).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인격의 견고함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디도서 2:

3-5)

인격이란 자신이 서 있는 그 곳에서 그리스도의 전
능하신 힘을 입으면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4

학대받는 여자에 관하여는?

학대받는 여성은 피동적으로 침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위협을 당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되면 반드시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폭력에도 견디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성들에게 결혼생활과 성생활에서의 폭력을 견디어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폭력은 복음을 위해 견뎌야 하는 핍박과는 다릅니다.

당신이나 당신 주변에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의 참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

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태복음 18: 15 17)

매 맞는 여성은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하고 화가 난 집사님과 아주 다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렇게 상처입은 여성들을 돕고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이 매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성들이 속박과 두려움의 나날을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남성이라도 여성에게 이기적이며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더우기 어떤 여성도 진노의 하나님께서 이 남성을 치실 때까지 죄를 계속 짓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남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 맞는 여성은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하고 화가 난 집사님과는 아주 다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마태복음 7:12). 예수를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간 딸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시달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카운셀러가 더욱더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고 딸에게 권면하시길 바라겠습니까? 아마도 부모된 사람으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서서 딸의 피신처, 경제 문제, 정신상담, 가족 돌보기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주길 바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순종”이란, 우리의 딸이 당하는 불의와 불법과 비인간적인 처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먼저 준 다음에 부족한 경우에

만 전문적인 사회 봉사요원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일 헌금에 어떤 집사가 손을 댄 것이 확실한 경우 교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는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5

성격적 모델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성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 우리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아비가일은 인격의 견고함을 발휘하여 다윗 왕에게 참소함으로써 남편과 집안 권속의 목숨을 구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술에 빠진 남편을 놔두고 용기와 주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슬로보핫의 딸들은 영적 평등의 정신을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가 상속법이 평등하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슬로보핫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자 마땅히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할 가족들은 그것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은 상속법의 부당성을 따져서 이를 더욱 합리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수기 27: 1- 11)

드보라는 하나님에게 선택되어 여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적 평등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 여성다운 성품을 잃지 않고 바락이 군대를 끌고 나가 그들의 침략자와 맞서 싸우라고 하였을 때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여자다운 성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왕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용모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고한 인격에 힘입어 목숨을 걸고서 자기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에스더 2 : 1- 18 ; 4: 10- 7 : 10)

나오미는 이국 땅에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쓰라림을 경험했습니다(룻 1: 3- 5). 빈손으로 처절한 신세가 되어 베들레헴에 온 그녀는 곧 건고한 인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건을 바꾸어 선하게 만드시는 것을 본 그녀는 즉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룻 2 : 20)

룯은 선별적 순종과 견고한 인격을 보여 주면서 시
 어머니인 나오미와 헤어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과 자기가 섬기던 신을
 떠나서 낯선 땅의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
 였습니다(룯 1 : 6~18). 그러나 룯은 보아스와의 관
 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지는 나오미의
 말을 따랐습니다(룯 2 : 22, 23 ; 3 : 1-6). 룯은 욕심
 이 없었고(룯 2 : 14, 18). 부지런하였으며 (룯 2: 3-7,
 온유하고(룯 2 : 11 ; 3 : 10), 덕이 많으며(룯 3: 11),
 나오미에게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되었습니다
 (룯 4 : 15). 룯은 여자다운 성품으로 더욱 보아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룯 3 : 3). 또 룯은 보아스에게 범
 적 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기업을 회복해 줄 것을 요구
 하여 영적 평등성을 나타냈습니다.(룯 3 : 9) 덕있는
 여인의 특징을 잠언 31 장 10-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
 고 있습니다.

- 현숙한 아내요 어머니입니다.

- 가족과 가정을 위해 삽니다.
- 부지런합니다.
- 교양이 있고 질서를 지킵니다.
- 사업에 능합니다.
- 선하고 세련된 취향을 가집니다.
- 손님을 진심으로 반깁니다.
-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 영적인 심령을 가졌습니다.

6

하나님의 지나친 요구일까요?

“덕있는 여성 이야기는 그만 좀 하시지요. 나는 이미 불안함을 느끼며,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완전한 여자’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열등 의식만 더느낄 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성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성이 지닌 능력 이상의 것을 기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성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낮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해심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

만 가지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 없는 죄목을 보여 주시면서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로 가장 낮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들의 고통스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손수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십니다(테살로니가전서 4: 1-8).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소망과 생명과 능력과 귀한 신분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사도행전 16: 31).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거저 주신 것 말고는 결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